

경찰, 이원택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부안 사무실·김슬지 선거사무소
 전북경찰 압수수색 15일 집행
 업무추진비·사비 사용 여부 쟁점
 이원택 “대답 사실 몰랐다” 주장
 전북경찰이 주류, 식사비 대납 의혹을



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오전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 김슬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읍 모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을 김슬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김 도의원은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업무추진비와 사비 등으로 당시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신과 보좌진의 식비는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김 도의원이 비용을 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안호영 재심 기각 이원택 후보 최종 확정

안호영 “납득 어렵지만 수용...
 재감찰까지 단식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이원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강준원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원택 후보의 식비대납 사건에 대한 당의 감찰이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식비대납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당에 윤리위의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당은 이 후보측의 식비 대납사건이 폭로되자 윤리감찰을 실시한 뒤에 이 후보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경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같은 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식비대납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경선 중단과 함께 윤리재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선은 진행됐다.

경선 결과 이 후보가 지난 10일 선출되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당의 결정에 대해 “(당의 결정에 대해)절차상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만큼,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경선 결과에 대해선 수용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다만, 이번 재심 과정에서 제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재조사,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초 윤리감찰은 촉박한 시간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 몇 통으로 끝난 졸속 절차였다. 그 결과 이원택 후보에게 면죄부가 주어졌고, 이 후보는 그 결과를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감찰이 진행됐다”며 “때문에 전북도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공정성에 대한 도민과 당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 결과 발표에서도,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 실제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서도 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이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단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윤리감찰단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심 결과는 존중하지만 재감찰 요구는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 재감찰이 시작되고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대납 의혹 사실 아냐...양심 걸고 수사 협조할 것”

“압수수색 계기 진실 밝혀질 것”
 CCTV·포렌식 객관적 검증 촉구
 “억측 자제하고 공정한 판단” 호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15일 ‘식비 대납 의혹 제기’와 관련, “저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재강조 드린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실은 감출 수 없다.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과 민주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히려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에 다가가겠다”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경찰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수사가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기되는 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인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주장은 사실과 균형에 기반해야 하며, 한쪽에 치우치거나 단정적인 비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 여러분과 민주당원께 호소 드린다.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의 양심을 걸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겠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단편적 시각이나 억측은 자



“당 결정 존중하지만 단식 지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식비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 윤리재감찰을 요구하고, 윤리재감찰 경과가 나올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제시했다. <전북타임스>

제하고, 진실 규명에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김슬지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을 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염영선 “고유가 극복 ‘전북형 민생회복패키지’ 시급”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5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민생회복 패키지’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염 의원은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방위적 구호 대책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대응이 무기력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도내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지원 예산이 17억 원에 불과해 도민이



염영선 도의원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다”고 지적한 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책 또한 여전히 ‘검토 중’이다”며, 기존에 해오던 LED 조명 교체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및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상반기 조기 발주, 면세유 예산 증액 및 화물 업계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과 같은 3대 대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제안했다.

특히 염 의원은 “도민의 삶이 무너진 뒤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며, 김관영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 광역의원 1차 경선 돌입

진안·임실·순창·고창2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1차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경선 지역은 진안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2선거구다. 경선 날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경선 후보(성명 가나다순)는 진안군 박주홍·전용태 후보, 임실군 광

규중·박정규·장종민 후보, 순창군 신정 이·장승필 후보, 고창군 2선거구 김정강·김태환 후보 등이다.

첫날인 16일은 10~21시까지 권리당원이 ARS를 받는 방식이다. 둘째날인 17일은 10~15시까지 권리당원이 ARS를 거는 방식이다. 거는 방식은 첫째날인 16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만 가능하다. 거는 ARS 전화번호는 17일 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같은 날인 17일 18시30분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광역·기초의원 경선 관련,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미확정 등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제2회 순창 찰뚝뚝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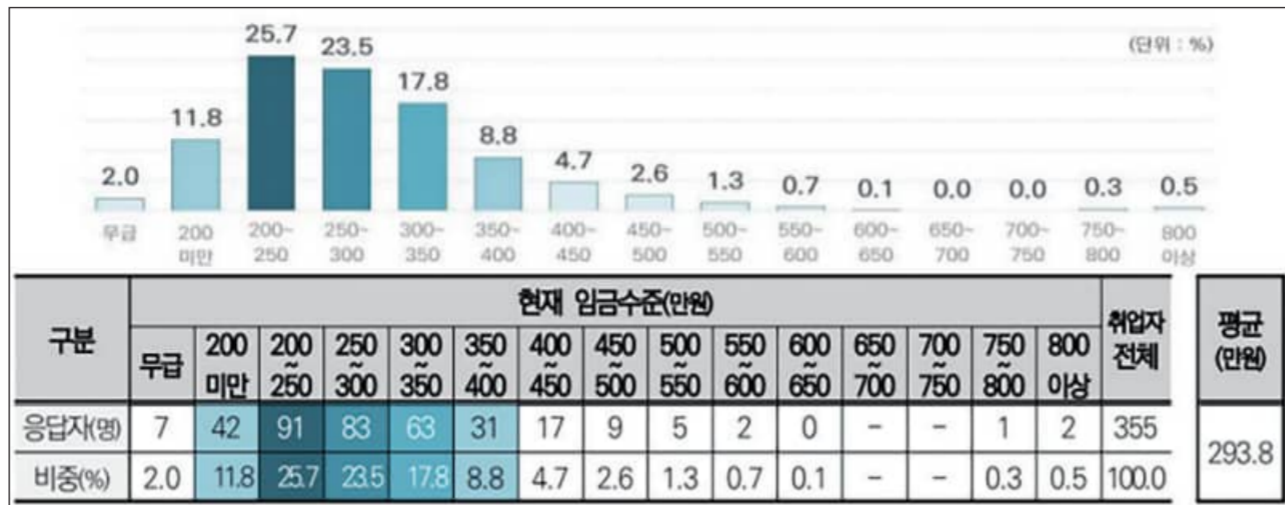
청정 순창에서 봄나물 향연

2026. 4. 17.(금) ~ 18.(토)
 순창읍 경천 일원(순창군청 건너편)

주관 | 순창군산림조합 농협 순창군지부 · 순창농협 · 동계농협 · 서순창농협 · 구림농협 · 순정축협 ·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후원 | 순창군

전북연구원 “청년 정주 핵심 ‘임금·성장·워라밸’”

전북 거주 청년 500명 인식 조사
희망임금과 현실 격차 75만원
주40시간·유연근무 요구 ‘뚜렷’
‘지역 미래·주거’ 정주결정 요인



구분	무급	200 미만	200~250	250~300	300~350	350~400	400~450	450~500	500~550	550~600	600~650	650~700	700~750	750~800	800 이상	워라밸 전체	평균 (만원)
응답자(명)	7	42	91	83	63	31	17	9	5	2	0	-	-	1	2	355	293.8
비중(%)	2.0	11.8	25.7	23.5	17.8	8.8	4.7	2.6	1.3	0.7	0.1	-	-	0.3	0.5	100.0	

전북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개수 늘리기보다는 소득, 시간, 성장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질 개선이 정주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은 15일 전북 거주 및 활동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경험과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2026 POLICY BRIEF Vol.68)을 발표했다.

전북 지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293.8만 원인 반면,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은 369.2만 원으로 나타나 약 75만 원의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보상이 생활비나 노동 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자리 만족도(5점 만점)에서도 고용 안정성(3.82점)은 높게 나타났으나, 임

금수준(3.05점)과 역량개발(3.05점), 경력향상(3.11점) 등 미래 지향적 지표는 평균(3.28점)을 밑돌아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 형태에 대한 욕구도 뚜렷했다. 전북 청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이었으나, 절반 이상(50.1%)이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실시율은 27.0%로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들은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30.6%)와 시차출퇴근형(23.8%)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55.4%)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등 생활공간(52.8%)이 뒤를 이었다. 이

전북도내 청년들의 현재 임금수준 <사진=전북연구원>

는 청년들이 단순히 현재 직장의 유무를 넘어 지역의 미래 비전을 보고 정주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초기 자금 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돈대출 지원(64.4%)과 보증금 보호 강화(42.3%)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들의 가치관이 소득, 삶의 질, 성장 가능성으로 분화되고 있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생활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및 생활 안정 패키지 지원, 워라밸과 생활 안정을 지향하는 집단을 위한 유연근무 도입 인센티브 및 일자리-

주거 복합 모델 구축, 그리고 성장·경력 개발을 중시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도화된 직무 교육과 지역 내 우수 일자리 정보 네트워킹 강화 등 다원화된 가치관을 반영한 ‘맞춤형 3대 정책 모델’을 입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구를 맡은 전희진 책임연구원은 “전북 청년의 이탈을 막으려면 단순히 일자리 공급에 치중하기보다 소득·시간·경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문화인프라 시설에서 콘텐츠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지역성장펀드 600억 확보...벤처 생태계 ‘가속’

모태펀드 연계 1천억 규모 조성
시·이차전지 등 집중 발굴 투자
연내 운용사 선정펀드 가동 목표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60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성장펀드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며, 비수도권의 투자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자금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으로, 전북은 추가 재원 투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우선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도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펀드 가동 체계에 들어간다. 이미 정책 자금 600억 원을 마중물로 지역 행정(170억), 금융(200억), 대학(10억), 선배 기업(16억) 등 가용 역량을 결집한 1,000억 원 규모의 ‘윙팁 펀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연내 운용사(GP)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달 결성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자 분야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피지

컬 AI·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기업을 우선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펀드를 발판으로 수도권 대형 VC(벤처캐피탈)의 전북 기업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해 외부 자본의 지역 유입을 적극 이끌어낼 예정이다.

IPO 가속화 지원 데스크 운영, 유니콘 엔진 펀드 연계, 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묶은 ‘폴 패키지’ 후속 지원을 통해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북은 비수도권 최초로 1조 벤처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 지역성장펀드까지 더해지면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 3년간 TIPS 선정 기업이 14배 급증하고 78개 사가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모태펀드 연계 구조 설계,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 등 행정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준비한 실행력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전북이 대한민국 벤처투자의 핵심 거점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유망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김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세계서예비엔날레관·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현장 방문
“문화·관광 체류형 소비 이어야”

김관영 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

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초점.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전주 MICE복합단지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전시·회의 기능이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 요소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 시설·상권과의 연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완공 이후의 운영과 연계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재확인하며, 개별 시설 단위를 넘어 문화·관광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완성 단계”라며 “시설이 단순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관광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산란기 불법어업 ‘칼 빼다’...해상·육상 합동단속

산란기 맞아 수산자원 보호 집중
한달간 육·해상 동시 단속 체계
무허가 어업·불법어구 사용 점검

전북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한 달간 도내 연안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주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성장

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구

사용량 초과, 어린 물고기 포획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불법 조업이 잦은 해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지도선을 중점 배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승선 점검을 실시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

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산란기는 미래 수산

자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들도 법령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미세먼지 관리 방법



01 실내공기관리

공기청정기사용 하거나 환기 시
미세먼지농도 낮은 시간선택.
실내습도는 40~60%



02 외출

외출은 최소화 차단효과 높은 KF80
등급이상의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속 털어 내고 샤워철저



03 식생활/건강관리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항산화효과
음식섭취 충분한 물 섭취로
미세먼지 배출 돕기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초록서포터즈’ 출범

2026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홍보·현장 지원 등 활동

전주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 ‘초록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다.

‘초록서포터즈’는 정원도시 전주를 알리며 오는 5월에 개최될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5일 ‘2026 초록서포터즈’ 발대식을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초록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

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 박람회 캠페인 활동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덕진공원에 조성되는 다양한 정원전시 홍보 △박람회 행사장 내 현장 지원 등 박람회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초록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눈높

이에 맞는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초록서포터즈가 전주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전주만의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친근하고 공감도 높은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전주시가 전주시민 소상공인 위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15일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

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이내, 업체당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4월 7일 기준 전주시에

서 사업을 영위하며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자 △유형업과 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의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월세 지원’ 나서

29일까지 기숙사 월세 지원 신청

전주시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채용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 고용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총 18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7~8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1실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이며, 사업주는 매월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선

지급한 뒤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하면 된다. 단, 보증금과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총사자이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보텀e’ 가입이 필수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무 10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일부는 신규채용자를 포함해 운영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서류 평가 등을 거쳐 적합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된다.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9일 18시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brother2202@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현장 점검

예산집행 적정성·사업성과 확인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이기동 의원)가 15일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덕진공원과 아중호수도서관,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평화동 청년만원주택

등을 찾았다.

이들 위원들은 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기동 대표위원은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민

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운용됐는지 철저히 검증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전주시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낭비 요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이기동(행정위원회, 안산,중화산1·2동) 의원을 비롯해 송영진(조춘·여의·혁신동) 의원, 김희수 전 도의원, 윤종조 전 전주시의원, 김상용 전 전주시 공무원, 박경기 회계사, 송정아 세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4월 한 달간 반려견 광견병 예방백신 2000개 지원 예정

전주시는 4월 한 달간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광견병 예

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

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완료 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동물병원은 전주시역 35곳으로,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전주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는 희망하는 동물병원을 선택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안내 홍보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부담 예방 납세자 인식 개선에 ‘집중’

전주시는 지입차량과 건설기계 등 기계장비 취득 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

체 등을 중심으로 지입 형태의 화물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이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 ‘꼭 알고 신고하세요! 지입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안내문을 비치·배부하고, 전주시 누리집과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 관련 협회와 건설기에 관련 단체, 세무사 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 게

시를 요청하는 한편, 문자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생명사랑 연합캠페인 실시

전주시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위한 자살예방사업이 강화된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지역 사회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생명사랑 연합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자살예방 상담번호(109) 흥

보 △전주시민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작성 △정신건강 자가검진 △신체건강 체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또, 은둔·고립이웃 돌봄사업과 주거복지 정책

등 맞춤형 복지사업 안내도 이뤄졌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건지도서관 국립생태원과 손잡고 생태특화도서관 운영

생태도서 전시·전문가참여 교육 연계

생태 특화 도서관인 전주시 건지도서관이 국립생태원과 손잡고 지역 내 생태 문화 확산에 나섰다.

건지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

과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도서·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

을 넘어 생태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건지도서관은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생태 도서를 활용해 ‘생태 서거’를 조성하고, 어린이 자료실에 생태 영화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여기에 생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 아동의 목소리 시정에 담는다!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전주시 미래 주역인 아동 참여권 증진 활동 ‘2026 아동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15일 가졌다.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국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아동 참여기구다.

올해는 완산·덕진 권역 지역아동센터에서 선발된 아동 40명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 6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앞으로 △아동권리 교육(5월) △아동권리 실태조사(6월)

△정책 체험 워크숍(7-8월) △포토보이스 기반 정책제언(9월) 등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는 아울러 조치 결과를 아동들에게 직접 환류(피드백)해 정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오는 10월에는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언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3건 위반 적발

고발 건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전북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 특별점검한 결과, 31개 사업장 43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 특별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점검은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전북지방환경청 적발 위반사항 43건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18건(41.9%) △대기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14건(32.5%) △대

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25.6%) 등이 포함됐다.

위반사항 조치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10건) △과태료 부과(32건) △시설 개선명령(1건) 등이다.

아울러 각각의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한편 환경청에서는 이들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2026년 전북구급지도협의회 정기회의

7월까지 무인점포 563개소 대상 전수조사 따른 화재예방 선제 대응

1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구급지도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구급서비스 향상과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중요 논의가 이어졌다.

‘구급지도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됐다. 현재 전북소방본부에는 선인·위촉한 30명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로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날 회의 통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 방안 △의학적 자문체계 구축 및 지도의사 운영 활성화 △의료지도 운영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운영 관련 현장 의료진 의견 수렴 △응급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까지 도내 무인점포 563개소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포함한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비대면 소비 확산과 인건비 상승, 24시간 운영 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무인카페 △셀프빨래방 △스터디카페 △인형뽑기방 등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인 운영 특성상 관리자 부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예방 중심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는 실태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단계별 화재예방대책으로 추진된다.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현황과 화재취약점포를 파악하고, 6월에는 무인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7월까지 소화기 미비치 등 화재취약점포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이석규 연구행정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병원 연구지원과 이석규 연구행정팀장(사진)이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석규 팀장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지역완결형 필수 공공의료체계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추진에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팀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응

급의료센터운영지원팀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내 중증병원의 응급 및 재난 의료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응급실 내 과밀화 해소 △중증환자 재실 시간 단축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 간 협력체계 보완 등 응급실 내원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민의 생명 보호와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현재는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팀장으로서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행정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도-전북T’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선정

2년간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세계 시장 진출 기반 확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글로벌 강소 및 강소+ 기업 5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에 발굴·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강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실적, 기업 성장역량, 글로벌 확장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전년도 수출액 기준으로 500만달러 이상 기업은 ‘강소’,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강소+’로 구분된다.

올해 신규 지정 기업은 총 5개사로 △비나텍(주) △산간기공(주) △에스시

디디(주) △썬다시 △썬지노모터스이며, 기존 지정기업인 △썬지엠에프 △썬시지트로닉스 △대림씨앤씨(주) △케이넷(주) △익산주유리협동조합을 포함해 총 10개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방위산업, 이차전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점 육성 중인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돼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에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10개사의 성과분석 결과 10개사의 평균매출액은 500억원으로 전년도 350억원 대비 43%가 증가했으며, 평균수출액도 166억원으로 전년도 90억원 대비 85%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기업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추진되는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기술개발·사업화 △공정개선·디지털전환 △경영전략 및 R&D 기획 △인증·지식재산권 △ESG·지속가능경영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이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을 수 있다.

지역자율프로그램은 5월 중 공고 예정이며,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홈페이지(www.jbkc.or.kr)를 통해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역자율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견적서, 개인정보 동의서,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등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풍년농사 기원 영농지원 발대식

농촌일손돕기 분위기 확산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15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본점에서 ‘2026년 전북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농지원 발대식 행사에는 전북농협 임직원, 시너지협의회, (사)농가주부모임(전북도연합회장 김미자),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장 김경리),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농촌 현장에 찾아가 실질적인 영농 지원 활동을 펼치며 농촌일손돕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특히 참가자들은 사과 적화, 육묘판 나르기, 방울토마토 따파기, 포도순치기 등 다양한 농작업에 직접 참

여하며 영농철 농촌의 일손 부족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해 영농철마다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손돕기 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농협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올 한 해 우리 지역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영농지원 발대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기업·단체 등 도시민들이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북지역 상생협력 사업’ 모집

복지 사각지대 개선 지역활력 사업 공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상생 위한 ‘N·P·S 전북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전북 상생협력 사업을 공모로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공단은 전국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총 3개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문화·복지·체육활동 지원 △

안전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등이다. 공단은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선정 기관에 각각 최대 5천만원,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우리카드가 후원한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

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가 희망 기관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일반·물류 동시 모집

중기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대미 정책 변화 등 가중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1300억원 규모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은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4.167달러(1TEU 기준)를 돌파하는 등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중기부는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적기에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뷰티·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며, 또한 수출국 다변화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기업에는 추가 한도 확대도 부여된다.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물류전용바우처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 항목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획기적으로 넓혔다.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뿐만 아니라 스마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샘플 운송비 △중합물류 대행(폴필먼트) 서비스 등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17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3월 전북도 15세이상 고용동향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2026.03월 전북도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동월 보다 1천명 증가한 154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10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 65.1%를 보이며 또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4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1만명(-1.9%) 감소했다.

가사는 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6.2%) 증가했지만, 육아에서 1만6000명으로 1만1000명(-40.2%), 통학은 11만7000명으로 2000명(-1.9%)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2026.03월 15세이상 취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1.6%) 증가, 남자 5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2.5%) 증가, 여자 43만8000명으로 3000명(0.6%) 각각 증가했다.

고용률은 63.7%로 전년동월대비



<사진=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

농진청 “이른 봄 적기 방제로 감염병 예방” 당부

고온·젖은 비, 보리·밀 병 피해 키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가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겹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 낱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겹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삭 팎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빠지며 피해가 커진다.

병에 걸리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삭 팎 때부터 시기에 맞춰 약제를 뿌린다.

병 진전을 늦추려면, 물 빠짐길(배수골)을 정비해 재배지 습도를 낮추고, 비 예보가 있으면 미리 약제를 살포해 병

침입을 막는다. 붉은곰팡이병은 수확 후에도 알곡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해 신속히 건조한 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 알곡 표면의 붉은곰팡이균 증식을 예방한다.

△겹질마름병= 최근 밀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며, 이삭 팎 후 낱알 겹질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

잎에서 작은 갈색반점이 형성되며, 노란 달무리(halo)에 싸인 갈색의 둥근 모양으로 커진다.

주변 병징들과 합쳐지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잎이 갈라진다.

△잎집무늬병= 초봄에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면, 주로 건조한 사질 토양에서 잎집무늬병이 침입해 눈 모양의 병징을 형성한다.

토양 전염 곰팡이인 병원체가 줄기 아래부분을 통해 침입해 타원형의 갈색 병징을 만들고, 잎집을 따라 위로 퍼져간다. 줄기 아래쪽을 세심히 살펴 병징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병 발생이 심한 재배지에서는 수확 후 잔재물을 제거한다.

△위축병(BYDV)= 치료제가 없는 바



이러스병이지만, 진딧물이 옮기므로 진딧물을 방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감염되면 잎이 노랗거나 붉은색 혹은 보라색으로 변하고, 생육이 불량해져 생장이 불안정해진다.

위축병은 불량한 기상 환경, 토양산도 등 환경 스트레스나 다른 병과 결부될 때 피해가 더욱 커진다.

활동한 보둑 진딧물이 병을 옮겨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진딧물이 보이는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박향미 과장은 “이른 봄의 고온과 젖은 비로 보리, 밀에 나타나는 병해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초봄에 감염된 병 피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병 발생을 살피고 적기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오는 25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35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중심 경제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초등학교 대상 소비자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이다.

이번 4월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녹색

소비 & 딸기 수확’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환경 친화적 소비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린이들은 탄소중립의 개념, 친환경 마크 확인 방법,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법 등을 시각 자료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하며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35명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통식품 판로확대

마케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4일 도내 전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간담회 및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통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SNS 및 온라인 마케팅 활용 △숯품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기획 △AI 기반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AI 도구를 활용한 자사 제품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실습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적용 가능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통식품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이오진흥원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북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 제조 AX 거점 부상

대통령 직속 국가AI 전략위 방문... 시연 및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전북대학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교내 '피지컬 AI 제조 기술실증랩'을 방문해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 AI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인 '5급 3축 기반 AX 혁신벨트 구축' 정책의 일환이다. 전략위는 실증랩 현장에서 피지컬 AI 기반 공정 자동화, 이종 로봇 협업, 정밀 작업 데이터 수집 등 핵심 기술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인프라 확충 방안, 피지컬 AI 본사업 추진 방향 등을 집중적으

로 논의했다.

현재 전북대는 피지컬 AI 사전검증(PoC)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제조·물류 분야 실증랩을 구축하고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KAIST, 성균관대학교,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등 주요 산·학·연 기관들이 대거 참여 중이다.

최근 전북대 실증랩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방문하며 국가 AI 정책 실행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방문 당시 AI를 통한 지역 산업의 구조적 한계 돌파를 주문하며 제조 AX 거점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임명령 부위원장은 "전북대는 피지컬 AI 실증과 인재 양성이 결합된 국가 핵심 거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을 제조 AX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실증랩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대표의 적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며 "향후 본사업에서는 공장 단위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현해 실행형 AX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전북대학교>

전북대 김순태 피지컬AI융합기술사업추진단장(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은 "사전검증 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

/최성민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성과 '우수'

국제 선발전 및 전국대회 입상

군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최된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서 군산시청 소속 선수들이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김호연 선수는 2시간 18분 24초로 국내 남자부 3위를 차지했으며, 김종현 선수는 2시간 21분 26초로 7위, 김한별 선수는 2시간 31분 38초로 25위를 기록했다.

이들 세 선수의 기록을 합산한 결과 총 7시간 11분 28초로 남자부 단체전 3위를 달성했다. 또한 하프마라톤 종목에 출전한 최중민 선수는 1시간 8분 49초로 남자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군산시청 조정팀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조정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여자부 싱글스컬 종목에서 김승현 선수가 8분 7초63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무타페어 종목에서는 김채연 선수가 최미서 선수가 8분 0초 4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5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는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컬에 출전한 안예선 선수가 8분 30초71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군산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유성동 "3자 단일화 문자는 허위"

가짜뉴스 법적 조치 예고 선거 완주 의지 재확인



유성동 예비후보

유성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포함한 3자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 예비후보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남호, 황호진 예비후보의 단일화 선언 직후 '유성동 후보를 포함한 세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

다'는 거짓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특정 후보가 선거를 포기한 것처럼 몰아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전북교육감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명분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전북 교육을 위한 정책과 비전 제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이남호,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남호 후보로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이남호, 천호성, 유성동 예비후보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내달 29일까지 민간기록물 수집 신청 받아

교통의 요지 익산이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모아 '기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6일 시작된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현재까지 총 800여 점의 소중한 기록물이 기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는 특히 익산의 정체성인 '교통'과 관련해 옛 고속버스표, 시내버스 회수권, 교통 경찰관 위촉장 등이 쏟아져 나와 익산의 역동적인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익산시는 기증된 기록물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약속한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내 '기증자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전원의 이름을 영구히 새기고, 습도와 온도가 완벽히 조절되는 전문 수장고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또한 심사를 통해 45명을 선정해 시상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도록 제작과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기억이 모여 익산의 위대한 기록 역사가 완성된다"며 "나의 작은 추억이 시의 공식 기록이 되는 특별한 경험에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남호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발표

진로 교육 생태계 재구조화 제시



이남호 예비후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교육 대전환 5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익산을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로 지정해 전북교육정과 익산시, 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특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 공약으로는 이리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과 이리여고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멸 위기를 겪는 북부권에는 '의학교육 연계 지속형 명품중학교'를 설립한다. 공동화가 진행 중인 구도심

학교는 '원도심 오픈스쿨'로 지정해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상시 개방에 따른 일선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별도의 '교육시설관리단'을 신설해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역의 소멸 위기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 자원들을 교육으로 연결해 스스로 찾아오는 진로 교육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활동준비금' 행정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도내 예술인들의 원활한 '2026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신청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행정지원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연 1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창작활동 경력이 있거나,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단, 외국인을 비롯해 올해 '예술로 사업' 및 'K-Art 청년창작지원사업' 선정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신청은 17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5월 말 발표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예술활동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도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전북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습성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식중독 주의 정보



1. 조리 전, 식사 전 흐르는 물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3. 육류(중심온도 75°C), 어패류(중심온도 85°C)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기



2. 구토, 설사 증상 시 조리하지 않기



4. 어패류는 조리 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5.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기

군산시, 20일~5월 8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관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시술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군산시에 동물 등록한 반려견이며, 미등록한 반려견은 현장에서 등록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한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연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처리용 봉투를 휴대하는 등 기본적인 패터켓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공공이 먼저 줄인다”... 익산시 에너지 절감 대책 집중 점검

익산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전방위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익산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전 부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에 발맞춰 청사 운영과 공공시설 관리 전반에 걸쳐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본청을 비롯해 북부청사,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청사 내 조명과 냉난방 운영을 제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설비 활용과 전력 수요 관리, 원격 제어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는 단거리적 상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25가구 맞춤형 집수리 돌입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안락한 노후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25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집수리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의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 유형, 거주 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 25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가구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창호 교체 등 주택 내부의 소규모 수선을 알차게 지원한다.

시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현재 거주 환경의 상태와 거주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가구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의 눈부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그 고귀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보훈 가족의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고액 체납자 ‘끝장 징수’

6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체납액 80억 집중 정리 ‘총력’

익산시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의 살림살이를 든든히 채울 ‘체납 지방세와 전세’를 선포했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지난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80억 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의 총 체납액은 213억 원에 달하며, 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인 없는 돈처럼 잠자고 있다.

지방세란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도로를 닦고 공원을 만들며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는 ‘공동 자금’이다.

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36억 원을 회수하며 징수 엔진에 가동을 걸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공정’이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는 물론, 공매



15일 양경진 기획안전국장이 ‘체납지방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강제 팔기) 처분과 명단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특히 체납 차량은 길거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떼어 보관함)하고 급여와 예금까지 압류해 ‘세금은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차가운 칼날만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진짜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형편에 맞게 나

누어 내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강제 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등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포용 행정’을 병행한다.

양경진 기획안전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체납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확보된 재원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아동수당 확대 지급

9세아동 2,322명 추가 지원... 지급액 인상도

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시는 기존 8세 미만이었다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5천원 증액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군산시 내 아동수당 수

급 대상자는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돼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급 연령 확대도 다시 수급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해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확장이 아동 전체로 넓혀갈 예정이다.

수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번

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은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중심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민영 “마사회 유치 전력 다 할 것”

공공기관 이전 적극 대응 “경제 도약 중심지로”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를 전략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은 호남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KTX가 지나가 지역 발전의 최적지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 청사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동반성장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김민영 예비후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내 유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다.

경마 시행뿐 아니라 승마, 말 생산·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전반을 담당하며, 2025년 기준 매출액 1조6,400억원, 임직원 약 2,700명 규모다.

김 예비후보는 “이처럼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의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한국마사회 분사 이전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법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정부 정책과 기관 의사결정에 따라 이

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김 후보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과 확장성,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 후보지를 사전 검토해 정부와 기관을 설득할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읍의 미래 100년을 바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할 시기”라며 김민영 예비후보는 “한발 앞선 전략과 실행력으로 반드시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를 현실화하고, 정읍을 전북 서남권 경제 도약의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신뢰 행정 구현 노력 인정”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익산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책임 행정을 입증했다.

익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2026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

우수(SA)등급 획득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우수한 성적표를 받으며, 공약 이행 성과와 책임 있는 행정 구현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민선8기 7대 분야 87개 공약사업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 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률 94.3%를 기록했다.

또한 매년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시는 남은 기간 동안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성과는 시민의 삶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민선8기 공약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혁신 가속화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 선정

정읍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가 주관하는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시민의 자산을 꼼꼼히 지키는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시비 부담 없이 약 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끌어올릴 맞춤형 전문 상담과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 가운데 총 3000필지다.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 및 항공 사진 분

석과 현장 실사를 병행하는 선진 조사 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시는 이날 중 사전 전문 상담을 시작으로 전문 조사 기관과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모든 실태조사와 정보망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체결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유류 자산은 주요 정책 사업과 연계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병철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자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026 서동축제 준비 ‘착착’

익산시가 2026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현을 시장 주재로 ‘서동축제 행정지원 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와 함께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동축제는 백제 무왕(서동)과 신화 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올해는 5월 1-3일 도실 속 신흠근린공원·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 만큼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과 위생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장 안전관리와 교통·주차 대책, 환경정비, 위생 관리, 관광 편의시설 운영, 홍보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축제 기간 임시주차장 운영과 축제장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해 물가 안정 지도·점검, 식품위생 점검, 의료 및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서동축제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시,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A등급’

2년 연속 우수 등급 유지

군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요소통 채널 소통 △공약 이행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군산시는 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시의 공약 관리 체계가 안정됐음을 입증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용서마을 ‘마을문화 프로젝트’ 선정

제작물 창작 밀착 지원

정읍시 신대인읍 화호리 용서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마을의 소중한 역사와 주민들의 생생한 기억을 문학 작품으로 피워낸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지역 마을의 문화 자원을 기술·채록해 문학 작품과 문화 자원(콘텐츠)으로 창작하고 이를 통해 마을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용서마을에

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 기록과 채록, 문학집 발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용서마을은 정읍근대역사관과 구마모토 농장 가옥 등 근현대 생활 유산이 고스란히 보존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또한 ‘숙구지리’는 지명 유래를 비롯해 주민들이 간직한 풍부한 구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록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마을이 간직한 소중한 기억을 기록으로 영구히 남기고 이를 정읍만의 차별화된 문화 자원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연계 산업 육성

크루즈물류 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15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물류 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경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선석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8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 신항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과제로 하는 용역을 착수하는 등 단계별 실행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정식 크루즈 선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 연구들과 연계하는 한편, 크루즈 산업을 관광 중심 기능을 넘어 항만과 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만금항 신항을 물류와 공급, 소비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김제가 보유하고 있는 농생명, 식품, 내수면 어업 등을 활용해 관광 분야 외에도 선용품 및 식자재 공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새만금항 신항 활성화와 항만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물류 인프라 관련 국비사업 및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서 본 용역을 통해 "선용품, 식자재, 채류 소비 등 연관 산업 파생으로 항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총력'

협업부서 상황 점검... 우기 전 대응 강화

부안군은 지난 14일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추진 중인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기간에 맞춰 협업 부서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필요한 안전 점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협업 부서별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철저와 함께 하천·소하천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 지속 정비, 하천·소하천 구역 공사 현장의 호우 재난 대비, 저수지 수위 관리 철저,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 및 발굴 노력 지속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군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생활권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향후 SNS,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부안군은 지난 14일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부안군>

행동 요령 포스터, 군 홈페이지를 통한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홍보를 추진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 대비 단계부터 군민과 함께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해 여름철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여름철 자연 재

난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협업 부서별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홍보와 주민훈련, 현장점검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심덕섭 "협오정치 앞장... 유기상 사과해야"

"철저한 진상조사와 반성·사과-징계 우선"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예비 후보는 유기상 예비후보에게 "최근 유예 후보와 실랑이가 있었던 당시지는 현재 선거관련 아무런 활동이나 대외 직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조국혁신당 고창지역위원회 후보가 저지른 5선 현직 군의원의 민간인 폭행 사실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기상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최근 유예 후보가 '상대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발언했다. 조국 대표는 물론, 지역

언론인들이 다수 참석해 있던 자리였다. 유 예비후보는 논란이 일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한 점은 유감"이라고만 답했다.

또한 이후 유기상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를 '상대후보측'으로만 바꾼 채 폭행사건의 당시지를 특정 후보와 특정선거캠프 관계자로 추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심덕섭 예비후보는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후보'라는 모호한 단어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고창지역은 수개월전부터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타 지역 인터넷 매체 등을 동

원해 민선 8기 고창군정에 대한 혐오와 증오정치에 앞장서 왔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군수 후보자라면 마땅히 언변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의 축하자리인 민민의날 행사에서 지역주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자당후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반성·사과-징계가 우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시 최근 유예 후보는 환자복을 입고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 병원에서부터 외출 허가는 받았는지, 다중 밀집행사에 환자복으로 참석하며 타 환자들의 감염위험을 높인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식품안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식품제조업체 대상 실무 중심 위생교육

김제시는 오는 16일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위생관리팀과 ㈜아이에스에이 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

으로 진행되며, 약 70명 업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HACCP 운영관리 포인트 △최신 식품 표시기준 △사례 중심 위생관리 실무 등으로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방식의 교육을 통해 참여 업체의 이해도

를 높이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20일부터 대상자 확인

고창군이 고유가·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60만명, 차상위·한부모가정은 50만명이 지급된다.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

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민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국민서비스 알리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현장방문

김제시는 지난 13일 성공적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한창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기수 새만금경제자유구장장을 주축으로 시 관련 부서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는 계획인구

약 3만 9천명의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김제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자유구장은 "새만금 수변도시는 김제시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계절근로자 입국률 '전북 상위권'

'중동전쟁'등으로 전세계가 항공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모내기과 감자 수확철을 앞두고 앞두고 1800명이 입국을 완료하며 선방하고 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치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3000명으로, 현재 1800명(60%)이 입국을 완료하며 전북 시·군 가운데 입국률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편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범죄 대응차원에서 자국민들의 장기체류 심사가 강화됐고, 국내 상황으로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 대응사업으로 동남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급증하며 비자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고창군은 악조건 속에서도 송출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 입국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오늘 라오스 근로자 36명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총 419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총 2550명(85%) 입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AI·SNS 활용 홍보역량 강화 교육... 군민 소통 강화

부안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서별 희망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AI 및 SNS를 활용한 지자체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 홍보에 접목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화영 권한대행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략적 홍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기획, AI 도구를 이용한 카드뉴스 및 이미지 제작 실습,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전략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접 고품질의 홍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작함으로써 군정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디지털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첫회의... 추진 방향 등 논의

고창군이 2026년 햇빛소득마을을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15일 군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군 관계 부서를 비롯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체계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은 이번 추진단 구성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 금융, 중간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및 공모 추진 전략 △기관별 역할 분담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이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모사업 선정은 물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성료

김제시는 지난 14일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2회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One-stop) 종합상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평선산단 내 백산다목적센터에서 제1회 상담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2회차 상담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근무시간 등의 제약으로 상담장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관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세류자적 및 비자 관련 행정 상담 △세류자적 및 비자 관련 상담 △세류자적 및 비자 관련 상담 △세류자적 및 비자 관련 상담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로에 필요한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이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은 인력난 걱정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환경친화적 위생 해충 방역 추진

부안군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친화적 위생 해충 방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며 오는 5월부터는 집중방역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안읍 시가지와 취락지, 밀집주택지 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3회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역소독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모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 하수구, 공원 주변의 천변 및 웅덩이 등 방역취

약지 일원에서 유충구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방역 사업도 시행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소형 분무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어 대상은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마을 자율방역단,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대표자이고 신청 후 간단한 사용 교육을 거쳐 방역약품을 총전한 후 정비를 대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63-580-3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서남용·임상규, 이돈승 공식 지지 선언

정책연대 이어 결선 앞두고 지지 "완주 대전환 이끌 적극자" 경선 막판 표심 결집 영향 주목



15일 기자회견서 이돈승 예비후보와 지지 선언한 서남용 예비후보 <전북타임스>

서남용·임상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돈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15일 지지 선언문을 통해 "완주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으로 이돈승 후보를 지지한다"며 "20~21일 진행되는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이돈승 후보가 승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서남용·임상규 후보는 "지난 4월 6일과 9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완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책연대'를 결단했다"며, "군민 여러 분께 약속드린 대로 '정책연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지지 선언을 통해 '완주대전환'을 향한 함께 가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완주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정제된 흐름을 바꾸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이돈승 후보는 완주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가 된 후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완주를 지켜온 가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 "각자가 준비해 온 생각과 비전 역시 이돈승 후보의 방향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결선을 앞두고 이돈승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연대 의지를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지금은 나누기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돈승 후보와 함께 완주를 다시 세우고 더 크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한관광 공모 선정...체류형 관광 확대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대상지 숙박·체험 연계 46개 혜택지 운영

순창군이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 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를 2026년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으며, 향후 혜택지 등록과 QR 스키너 설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 식음료,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관광

플랫폼 기반 사업이다.

순창군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 고유 자원과 관광 소비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정책 목표로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6개 업체 및 시설을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관광 2개소, 숙박 6개소, 체험 7개소, 식음료 24개소, 쇼핑 7개소로 구성돼 관광객들이 순창 곳곳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대표 혜택으로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1,000원 할인, 발효테마파크 입장료 20% 할인, 강천힐링스과 단체할인을 적용 등이 포함된다. 추후 지역 업체들의 추가 모집을 통해 할인혜택을 늘

려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 체류시간 연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숙박·식음료·체험·쇼핑을 연계 이용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이 '한 손 들르는 순창'이 아니라 '다시 찾고 머무는 순창'이 되도록 체류형 관광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강천산, 발효테마파크, 농촌체험, 장류와 미식 등 순창만의 매력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춘향제 '사랑나눔런' 온라인 9.6km 챌린지 가동

SNS 인증 결합 참여형 러닝 행사 선착순 96팀 오프라인 레이스 초청

남원시의 대표 축제인 '제96회 춘향제'가 올해 96주년을 맞아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기부 레이스로 전 국민을 찾아간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축제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춘향의 사랑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사랑나눔런' 온라인 9.6km 챌린지'를 오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러닝과 SNS 인증을 결합한 참여형 행사로,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chunhyangje)을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전국 어디서나 2인 1팀이 합산 9.6km를 완주한 뒤 기록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가치 소비와 자기표현을 즐기는 MZ세대에게는

즐거움 놀이문화의 장을, 중장년층에게는 건강과 나눔을 동시에 챙기는 경험을 선사하며 전 세대를 잇는 '디지털 오작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상에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수많은 달리기 기록과 인증샷은 '제96회 춘향제'를 알리는 강력한 홍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 인증을 완료한 팀 중 선착순 96팀(192명)은 5월 2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러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레이스에는 '기부 천사' 아티스트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예정이다. 참가비 일부는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참여자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챌린지 참여자 중 추천을 통해 50명에게 '시크릿 박스'가 배송된다.

아울러 온라인 챌린지 참여자 중 추



<사진=남원시>

첨을 통해 한옥명소 '명지각' 숙박권을 제공하여, 축제 기간 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프리미엄 한옥 체험의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올봄 남원의 설렘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대학 신입생 진학 축하금 200만원 지원

육친장학회, 신입생 174명에 지급 관외 졸업생·검정고시까지 확대

순창군은 (재)순창군육친장학회에서 대학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순창군에서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179명이 신청해 중복지원자 등 5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162명이며,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6명, 검정고시 합격자 및 재수생 등 6명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200만원씩 지급했다.

육친장학회 관계자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2019년부터 매년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며, 재수생, 검정고시 합격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024년부터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포함하는 등 보다 폭넓은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아트관 재개관

빛의 삼례, 시간을 걷다' 주제 실감형 영상 콘텐츠 구축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제2전시관이 리모델링과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4일 미디어아트관으로 재개관했다.

이번 미디어아트관은 '삼례의 자연과 시간'을 주제로 내부 리모델링과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으로, 총 452㎡ 규모의 전시관에 프로젝터 11대와 영상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몰입형 전시환경을 구현했다.

전시관은 삼례를 상징하는 딸기와 뽕피이를 테마로 한 포토존을 비롯해, 실감형 영상 콘텐츠가 결

합된 전시공간으로 구성돼 관객에게 체험형 전시를 제공한다.

특히, 삼례문화예술촌의 사계와 역사적 요소를 반영한 대형 영상 콘텐츠 9개 테마(약 15분)는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중완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미디어아트관 개관을 통해 삼례문화예술촌이 새로운 전시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아트관은 무료 관람으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춘향제 프리뷰 핵심작가 협업 '춘향화첩' 전시

아티스트 작품 특사인회도 진행 야간 LED 일러스트 전시 등 운영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 개최를 앞두고,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핵심작가와 협업한 프리뷰 행사 '춘향화첩: 일러스트로 다시 그린 춘향의 맛'을 오는 18일 오후 4시 관현루원 안원정에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전통의 격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핵심작가의 필치를 통해, 시대를 초월해 살아 숨 쉬는 춘향의 절개와 단아한 맛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행사 당일 열리는 '아티스트 토크 & 사인회'는 사전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캔버스에 담긴 춘향의 맛' 작품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준비된다. 18일부터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관현루원에서는 일러스트 야간 전시가 운영된다. 고해상도 LED



<사진=남원시>

라이트 패널을 활용한 15점 내외의 작품들이 야간 조명과 어우러져, 작품 특유의 세밀한 붓 터치와 생동감 넘치는 색감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하며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본 기간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체험 연계 프로그램인 '맛을 채우다: 나만의 색으로 완성하는 춘향화첩'이 상설 운영된다. 전문 미술 도구 브랜드 '문화연필'과의 협업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컬러링 북을 완성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초보 농부 돕는다...영농 기초교육 진행

5~6월 과정 교육생 20명 모집 농기계·스마트팜 등 실습 교육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신규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 1기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4일까지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8회, 36시간에 걸쳐 운영하며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개강식과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농촌 생활 이해, 적정 기술 활용, 농기계 교육, 농산물 안전성 관리, 온

열질환 예방 교육 등 신입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 이해와 비닐 온실(비닐하우스) 제작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다채로운 과정을 구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신청 희망자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 센터를 방문하거나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산내 중항마을, 전북형 마을문화 대상지 선정

마을 설화 등 구술 채록 콘텐츠화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기록 확장

남원시 산내면 중항마을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도내 인구소멸지역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 설화, 생활상 등 고유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이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촌마을인 중항마을은 오랜 세월 축적된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공동체의 기억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의 역사와 일상, 세대별 경험이 깊이 녹아 있어 구술 채록 등을 통한 이야기 발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확고해 이번 사업의 최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항마을에는 한지 제작의 기억과 소달구지 운송 이야기 등 주민들이 공유해 온 풍부한 공동체 서사가 남아 있다. 시는 이러한 고유 자산들이 문화적으로 재구성된다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잠재력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중항마을이 지닌 고유한 삶과 기록과 지역의 이야기를 의미 있는 문화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며, 선정된 마을과 별도의 운영단체가 협업해 마을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

순창군은 군민들의 복잡한 세금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세무상담 지원 제도로 지역 세정복지 향상과 세금 신고 및 납부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국제 및 지방세 세무상담은 물론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1차 상담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2차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순창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세무사(063-772-8222, 063-625-2219) 전화 또는 서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취약계층 아동 100명 영양제 지원...교육 병행

완주군이 4월 한 달 간 취약계층 아동에게 영양제 지원과 영양 교육을 제공하는 '키 쑥쑥 몸 튼튼 영양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영양 불균형 및 발육 부진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사레관리 아동 100명을 선정해 필수 영양제를 전달하고, 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펴며 편식 예방 등 영양 교육을 진행한 다.

또한 담당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영양상태 및 식습관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삼례읍 소재 천일약국(대표 김선화)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 천일약국은 2020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영양제 후원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선화 대표는 "가정 형편으로 고른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유진 아동전화과장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제29회 지회장기 읍면동 노인 게이트볼 대회 성료

(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지회장 박철근)가 주관한 '제29회 지회장기 읍·면·동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14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실내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각 읍·면·동분회를 대표하는 23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날 개최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한수 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대회 결과, 치열한 접전 끝에 죽향동 분회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우성기와 트로피, 남원시사랑상품권 30만 원을 거머쥐었다. 대강면 분회는 우수상을 받아 트로피와 상품권 25만 원을 수여 받았으며, 덕과면과 금동 분회는 각각 공동 3위에 올라 트로피와 20만 원의 상품권을 시상금으로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 수상 팀들에게는 남원시 대표로 상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최우수 팀인 죽향동은 2027년 전라북도 연합회장기 대회에, 우수 및 3위 팀인 대강면, 덕과면, 금동은 2027년 지리산지구 영호남 게이트볼 대회에 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박철근 지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검진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사업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재학생 700여 명이 대상이 되고 교직원 300여 명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교 중 임실초등학교와 오수초등학교는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학교는 이동 구강진료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치과의사)과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교육 관련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구강검진과 함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칫솔질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의 충치 및 구강질환 예방과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범암면, '제56회 범암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범암면은 지난 14일 범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민의 장 선정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현)를 개최하고, '제56회 범암면민의 장'을 맞아 범암면민의 장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는 지역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된 위원 8명이 참여해 공적 내용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문화체육장에 김용문 씨, 애향장에 오미란 씨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수상자인 김용문 씨는 범암면 체육회장으로 재임하며 면민체육대회와 내실 있는 운영과 마을별 참여 확대를 이끌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자인 오미란 씨는 범암면 출신 출향인으로 재계 범암면 향우회 여성국장으로서 활동하며 고향과 출향민 간 유대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전북도민화와 장수군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고향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종현 회장은 "범암면민의 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시상하는 뜻깊은 상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고향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친환경 에너지 확대 나선다

진안군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6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원하는 주민을 사전에 모집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절차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주민 자부담을 낮추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상 자부담은 태양광(3kW) 약 110만 원, 태양열(14㎡) 약 363만 원, 지열(17.5kW) 약 495만 원 수준이나,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사업은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연말 최종 선정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설치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수요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

3년 연속 SA(최우수) 등급 공약 70개 중 53개 완료

장수군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6 전국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현황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특히 장수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며 군민신

의 약속인 공약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 체계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돼 공약이행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미래농업 중심 부지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70개 공약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 가운데 53개 사업을 완료해 75.7% 이행률로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지속적인 공약 관리 및 성실한 이행 과정에 대한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으로 군민신

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정우 부군수는 "3년 연속 최고등급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라기보다 군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꾸준히 이행해 온 과정이 반영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변화가 체감되는 군정, 약속을 실현하는 행정을 통해 군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현재 기준으로 전체 70개 공약 가운데 58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이행률 82.8%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남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반려가족 대축제 '2026 임실N펫스타'

5월 1일~3일 오수의견관광지 이용중·강형욱 토크쇼 진행

임실군이 1500만 반려인의 반려동물 대축제인 '2026 임실N펫스타'가 가정의 달 5월의 첫 날, 화려하게 개막한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수의견관광지 전역에서 제41회 의견문화제와 연계한 '2026 임실N펫스타'를 개최한다.

올해로 41회를 맞는 의견문화제는 잠든 주인을 불길속에서 구하고 목숨을 바친 충견의 이야기를 담은 '오수의견' 설화를 기리는 축제로 1982년부터 이어져 온 임실군의 대표 향토문화 행사이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오수의견관광지 전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드넓은

잔디광장과 1,000여개의 수국화분, 약 1.3ha규모의 오수천변 꽃양귀 식재 등 경관을 대폭 개선해 관람객들에게 한층 쾌적하고 아름다운 축제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공간 전역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관람동선을 분산시키고 체류시간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 장기자랑 △전국 반려동물 토크쇼 및 패션쇼 △반려동물 올림픽(달리기·줄다리기·OX퀴즈) △펫산업 박람회 △오수의견 FC이질리티 경기대회 △반려동물 위그렛 미용대회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한방센터, 행동교정 및 훈련체험, 인식표·목줄 만들기 등 다양한 전문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

시, 부대행사가 풍성하게 운영된다.

올해는 축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인 신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FC(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대회'와 1시군-1생활인구 연계 사업인 '오수마스터데이', 원광대 RISE사업단과 연계한 KKF 반려동물 위그렛 미용대회가 새롭게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패션쇼에는 그룹 V.O.S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 개성 넘치는 런웨이를 보여주는 팀을 심사하고 토크쇼에는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와 이용중 교수, 설채현 수의사가 참여해 반려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지역 거점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본격

공동 거버넌스 체계 수립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무주군이 '2026 무주군 지역 거점시설 활성화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지역 거점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배후 마을까지 서비스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2층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단계) 완료 지구(무주,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

졌다.

이 자리에는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유통사업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삼권활성화추진단 등 지역 활성화와 핵심 조직 관계자들도 함께해 협업 기반을 다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촌중심지 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신활력 사업 연계 소득 창출 방안 마련, △도시재생·농촌상생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실질적 실행 체계를 마련하기 사항을 논의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주민대피 훈련

장계 동정마을을 실전형 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14일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장계면 동정마을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 악화로 인한 하천 재해 상황을 가정해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하천 재해 상황에 중점을 두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을 설정해 △민방위 경보음과 마을방송을 활용한 대피 안내 △주민 대피지원단을 통한 우선 대피 대상자 대피 훈련을 병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 장소인 동정마을은 나치천과 도좌천 등 4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장계천 하류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14일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장계면 동정마을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장수군>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 시 대응 지침을 점검했고 앞으로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정우 부군수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피 경로와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것 만으로도 실제 재난 발생 시 피

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군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은 장계면을 비롯해 소방, 경찰, 자율방재단, 지역 주민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실제 상황과 같이 진행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실록 적상산사고 사진전 개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고 포쇄이안 재연' 사진전 전북도청 1층 로비에 전시

무주군은 오는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고 포쇄이안 재연' 순회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시작된 전시는 도민들과 무주 적상산사고의 역사와 포쇄이안 재연 과정을 공유해 '실록 수호의 성지, 전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적상산 사고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고 포쇄이안 재연' 사진 40여 점(1점 89*59cm)을 비롯해 자료 저장소와 연계된 'QR 코드'를 통해 재연 영상이나 설명

을 볼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작품은 모두 지난해 무주문화원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고 포쇄이안 행렬'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이안사가 동향을 알리기 위해 관아로 향하는 모습 등 조선시대 역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은 "실록의 봉안 및 포쇄 의식은 당시 국가 차원에서 행했던 중요 의식"이라며 "무주군은 2024년부터 적상산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보존하던 전통 방식과 포쇄를 마친 실록을 궤 안에 넣는 의식, 실록 궤의 내용물을 기록하고 사각을 자를 때 사용하는 봉고시 등을 재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조선의 역사를 품은 무주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우리 조상들의 송고한 노력을 엿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추진

우리쌀올바른 이해소비 확대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신 품종 가루쌀인 '바로미2'를 활용하여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 확대를 위해 '2026년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가루쌀(바로미2)은 농진청이 개발 보급중인 품종으로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분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 때 활용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번교육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성수면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센터 실습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며, 한국음식교류연구회 김성경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단호박떡케이크 및 궁중약과(떡·한과) △대파치즈빵 및 당근케이크(제빵) △생크림카스테라 및 호두쿠키(제과) 등 다채로운 메뉴들로 구성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사회적응 도와

'세상과 연결되는 한 걸음'

무주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나섰다.

15일에는 희망자 20명과 함께 실천면 '라벤더트리 체험센터'와 '덕유캠프 농원'에서 '세상과 연결되는 한 걸음'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대상자들이 치료와 회복이 반복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털어내고 돌봄 부담이 큰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체험장에서는 '웰컴 티

타임'을 가지며 긴장을 풀고 '나만의 향기로 유칼립투스 삼프라 만들기', '수제 쿠키' 만들기 등의 시간을 가지며 일상을 나눴다.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가족들은 "환자를 보살피다 보면 노심초사하게 되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다"라며 "다른 가족들과 만나서 속내도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군은 9월에도 국립진안고원치유원에서 계절감을 살린 '세상과 연결되는 한 걸음' 2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관내 학교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실시

뮤지컬·미술·수공예 체험 교육 진행

임실군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사업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흡연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흡연예방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금연 전문

강사교육 또는 뮤지컬, 미술 등의 공연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전문강사교육을 통해 직·간접적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이로운 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뮤지컬, 미술 등 공연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교육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 관촌면지사협, 독거노인에 정성 담아 만든 빵 나눔

임실군 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소지현, 조래춘)는 지난 14일 협의체 위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빵을 만들어 제...

이번 특화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을 듬뿍 담아 직접 만든 카스테라와 음료를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래춘 민간위원장은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 시기동, 고립 가구 위한 안부 확인 건강음료 지원 추진

정읍시 시기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바깥과의 교류가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살피기 위해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8개월 동안 이어지며, 고립 가구 1인 세대 25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지원은 건강음료 업체와 협력해 진행된다. 배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는 동시에 짧은 대화를 통해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는 정서적 돌봄 역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곽경태 위원장은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이웃일수록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건강음료를 전하는 시간이 안부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 흥남동, 사랑의 기부 행렬 이어져

기탁자들 "나눔 지속하겠다"

군산시 흥남동에 사랑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우리들연합의원(원장 고광환)과 유한회사 옥산(대표 문환열), ㈜미래관광 김주창 대표는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흥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80포(총 800kg)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우리들연합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개성면에 위치한 유한회사 옥산 역시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기업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미래관광 김주창 대표도 뜻을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우리들연합의원과 유한회사 옥산, ㈜미래관광 김주창 대표는 15일 흥남동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80포(총 800kg)를 기탁했다 <사진=군산시>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익산시에 아동복 900벌 기탁

1,800만원 상당 아동복 전달

익산시 아이들에게 봄처럼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15일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공동대표 김진형·김주형)'로부터 아동복 900벌(1,800만 원 상당)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된 의류는 미취학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외출용 상하복으로,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아동복은 익산시 드림스타트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형 공동대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작은 기쁨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물품을 소중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아동복은 익산시 드림스타트와 읍·

/익산=최준호 기자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공동대표 김진형·김주형)로부터 익산시에 아동복 900벌(1,800만 원 상당)을 기탁받았다



김제하나새마을금고, 시장 상인들에 짜장면 대접

김제시는 김제하나새마을금고가 지난 1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교원동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이웃 간 온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웃음과 감사의 인사

가 오가며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요촌동 남여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음식 준비부터 배식, 행사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나눔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지리산뽕사골 고로쇠영농조합, 축제 수익금 기탁

남원시 산내면은 지난 14일 지리산뽕사골 고로쇠영농조합법인(김신범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고로쇠 축제 수익금(금일백만원)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달 성황리에 마무리된 산내면 발전협의회 주관 고로쇠 축제에서 조합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뜻이 모여 마련됐다.

김신범 회장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수익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활력을 주는 보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웅 산내면장은 "기탁하신 성금은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 공음면지사협, 봄맞이 영양 가득 반찬 나눔

고창군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애숙, 민간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4일 '봄맞이 영양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 남성 및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와 정서적 고립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장조림, 나물 등 영양을 고려한 제철 반찬 4종을 준비해 관내 46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하였으며 건강 상태와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 명정원에영농조합법인, 자폐아동 위한 성금 기탁

임실군 명정원에영농조합법인(대표 전혜숙)은 지난 14일 관내 자폐아동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명정원에영농조합법인이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자폐아동 가정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임실군 내 저소득 자폐아동 가구의 교육비 및 생활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실군 지사면 소재 명정원에영농조합법인이 지역 내 자폐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알림] ■

▲ 최의호 전북타임스 기자 차남 최경빈 군 결혼 (신부 이동형 장녀 이소연 양)

장소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포ئم웨딩홀 B1 메이에르홀
일자 :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산악사고 예방 수칙

● 자신의체력에 맞는코스 선택 하기

● 낙엽 및 낙석 주의하기

●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 일몰 2시간 전 하산하기

● 산악 위치 표지판 수시로 확인하기

독자투고

질서유지선, 안전과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선 아직도 위험천만한 행동과 집회방식으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경찰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집회의 본질을 흐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한 집회 행위를 적절하게 바꾸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질서유지선(Police Line)'에 대한 존중이다. 질서유지선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며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현장을 관리

하는 경찰 등 공권력 사이의 '안전 약속'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다음과 같음을 알고자 한다. * 참가자의 안전 확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나 주행 중인 차량으로부터 참가자들을 분리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 충돌의 완충지대: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여 평화로운 집회 환경을 조성한다. * 시민의 통행권 보장: 집회 공간과 시민들의 보행로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준다. 이와 같이 질서유지선은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

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순간, 집회가 전달하고자 했던 고귀한 메시지는 '무질서와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이미지에 묻혀버리고 말게 된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이 보장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경찰, 그리고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오늘의시

수선화에게 /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 길을 걸어갈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부를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화',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말린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8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一事一言〉

농협은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가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농촌을 살리는 현실적 대안 가운데 하나는 농협이 본래의 협동조합 기능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금융 중심의 운영 구조로 기울어지며 조합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어 왔다. 자산 확대와 사업 규모의 성장은 어떤 조직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농협은 그 출발점이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은행 업무 중심의 운영이 지속된다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남게 된다. 기능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체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통신 수단이 제한적이던 시절, 우체국은 전보와 편지, 지역 연락망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현재는 금융과 물류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라면 시장 경쟁의 논리만을 따르기보다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협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서는 금융 서비스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존재한다. 소량 생산 농산물의 판로 부족,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구조의 취약성이 그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 단위의 제한된 실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전국 단위 조합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어 왔다. 자산 확대와 사업 규모의 성장은 어떤 조직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농협은 그 출발점이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은행 업무 중심의 운영이 지속된다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남게 된다. 기능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체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통신 수단이 제한적이던 시절, 우체국은 전보와 편지, 지역 연락망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현재는 금융과 물류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라면 시장 경쟁의 논리만을 따르기보다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협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서는 금융 서비스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존재한다. 소량 생산 농산물의 판로 부족,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농민의 생산, 유통, 노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선연적 구조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농협 내에 '농촌 인력 지원 센터'와 '소량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정부와 연계된 재정 지원을 통해 초기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농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이 기존의 방식에 머문다면 농촌의 위기는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 농협은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 조직으로 자리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노동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협동조합의 의미는 현실 속에서 살아난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농협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틀 안에서 점진적 쇠퇴를 감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해답은 현장에 가장 가까운 조직인 농협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설

도의회 법인카드 논란, 전수조사로 신뢰 회복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속 의원의 '식사비 대납'과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회계 처리의 미비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동원됐을 가능성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도민 현재의 사유화이자 지방의회의 책무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부안에서 열렸던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이 도의회 법인카드 사용으로까지 번지면서 촉발됐다. 특히 특정 의원이 간담회 비용을 사후에 분할 결제하고, 사용 목적을 '지역 현안 논의' 등이라는 포괄적 단어로

기재한 정황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내용의 정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면 조직적 문제로 봐야 한다. 도의회는 사용일과 결제일 일치, 목적 구체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후 처방에 불과하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듯 특정 사안만 들여다보는 '핀셋 점검'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부지불식간에 관행처럼 사용되어 온 동일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분할 결제하고, 사용 목적을 '지역 현안 논의' 등이라는 포괄적 단어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법 또는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자체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 도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가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전수 조사와 결과 공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뒤따를 때 비로소 도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정읍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복지·일자리 도시로 도약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예산 집중 “물리·제도 장벽 허물고 모두의 기회 확대”

초고령화와 농업 중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읍시가 2026년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실질적 자립과 포용’으로 전환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정읍시의 장애인 인구는 9489명으로, 전체 인구(약 10만 980명)의 9.4%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 장애 인구 비율인 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의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성 장애 등록 비율이 증가하며, 농업이 주력 산업인 경우 농기계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지체장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통계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 정읍시는 2026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3억원 증액한 총 396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는 정읍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11%에 달하는 규모로, 시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이동권 보장, 생활 및 의료 안정,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 체감형 포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 배움의 장벽을 허물다..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배움’에서 시작된다. 정읍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되며 2년 연속 국가 지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4% 증액된 총 1억 6400만원(국비 8000만원, 시비 8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는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문해 교육, 인문 교양, 직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 권리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한다. 시는 약 980여 명의 장애인이 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중증·고령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연계형 학습 환경을 조성해 배움이 단절되지 않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정읍형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 이동 장벽을 허물다..전동보장구 보험부터 생활 밀착형 경사로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정읍시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해, 이용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또한, 1인당 최대 30만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며 현재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16개소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올 하반기 미설치 지역 12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이동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점과 건물 출입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도 한창이다. 2023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61개소에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구조상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노후 건물이나 협소한 상점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44종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시계와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를 포함한 46종으로 확대했다. 7세 이하 장애(예견)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강화해 월 최대 9만원을 추가 지원, 총 3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언어·미술·음악 재할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 연금·의료비 확대 및 외상 장애인 위생용품 신규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인당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지급된다. 특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21000여 명에게 16억원을 지원했던 장애(아동)수당 역시 올해 2067명의 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를 대상으로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7억원(590여 명 지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속적인 혈액투석 치료가 필수적인 신장장애인에게는 2024년부터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6년 신규 시책으로 ‘외상 중증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향시 누위 생활해야 하는 외상 장애인의 특성상 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 5종의 위생용품 소비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구입비의 50%(월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차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가 곧 복지..맞춤형 일자리 176개 창출로 사회참여 독려

정읍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기조 아래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156명) 대비 12.8% 증가한 176명으로 확대했다.

참여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분야별로 △일반형 일자리 54명 △복지 일자리 87명 △특화형 일자리 9명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6명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특히 민간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권의 옹호,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직무를 부여하여 당당한 사회 원으로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시의 높은 장애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촘촘하고 포용적인 복지 정책 마련은 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읍시는 일상생활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